사 설

‘전사법 개정’ 늦출 수 없다

일본의 한반도 경영과 수탈은 문화적인 방면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왜곡 내지 통제하는 것이 영구적인 한반도 지배와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 정책의 결과 그들은 한국 문화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불교를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조직으로 재편하여 통제하고자 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사찰령이다.

사찰령의 망혼이 현재까지 한국불교계에 전통사찰보존법으로 남아 있다. 물론 과거와 달리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순전히 불교문화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제정취지와는 달리 군사독재시대, 개발도상시대에는 통제의 수단이요, 불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그것은 또한 복잡한 한국의 법률구조와도 유관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 장자종단인 조계종은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법률체계의 단순화, 행정절차의 일원화, 전통사찰 주변환경보호의 강화, 사찰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의 공고화 등 명실공히 전통사찰 내지 불교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틀을 차제에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사찰은 특정 종교의 수행 공간이기 이전에 다른 한편으론 문화의 중심지이다. 현대에 와선 정신적 휴식공간이면서 자아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계종단의 이번 조치는 적절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시행하다 미비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관람료 징수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점이다. 관람료 징수가 지니는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폐해도 있는 만큼 더욱 심사숙고했으면 한다. 사찰이 몇 푼의 금전으로 유구한 문화적 자존심을 상실하지 않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지식산업사회에서 사찰은 문화의 중심지, 새로운 문명의 창출지, 평생교육장으로서 우리 곁에 우뚝 서야 하는 것이다.

한글대장경 완간 의미

드디어 한국불교의 긍지를 담은 한글대장경이 37년 간의 대 역사 끝에 총 318권으로 완간 되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오는 9월 5일 장충체육관에서 종단의 원로 대덕과 학계 · 교계의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께 고하는 회향법회를 성대히 갖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나 읽고 귀의할 수 있는 길이 한글대장경으로 인해 열렸으니 이는 우리 역사에 있어 고려대장경 조판에 버금가는 대작불사요, 문화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수 있는, 한국불교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쾌거라 할수 있다.

1962년 조계종단이 한국 불교의 3대 사업으로 본격적인 역경불사가 추진되었다. 1950년 운허스님의 주도로 법보원을 설립하여 한글 불교대사전을 만들고 역경사업을 기초하여, 1964년 3월 동국대학교에 역경원을 부설, 국가 지원을 받아 조직적인 협력사업이 이루어졌으며, 1966년부터 국고지원으로 매년 8권씩 세상에 선을 보였고 이제 드디어 대장정의 한글대장경의 완간을 마칠 수 있었다.

이는 때맞추어 범 종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고,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사였다.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정신문화유산이라는데 사회적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이 사회를 바르게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도록 회향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에 참여한 운허스님을 비롯 여러 스님들과 재가 번역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배우고 이해할수 있게 됐으니 번역에 참여한 ‘역경보살’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인 한글대장경을 쉽게 읽고 신행할 수 있도록 현대인에 맞는 어법으로 개정하고 오역을 바로잡는 일과 정보화에 발맞춘 전산화 작업에도 온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자들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불교환경연대 9월6일 창립

사찰 생태조사-환경 교육·감시 등 활동

상임대표에 수경스님

새로운 범불교 환경단체가 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지리산 살리기 및 댐 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의 활동과 성과를 계승하는 (가칭)불교환경연대가 9월 6일 오후 1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출범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김명자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될 창립식에서 불교환경연대는 상임공동대표 수경스님(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상임대표)을 비롯 종회부의장 청화스님, 종회의원 법등스님, 김동민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임완숙 교사불자회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리산살리기범불교연대에 참여했던 조계종 중앙신도회, 경불련, 대불청,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환경교육원, 대불련 등 10개 단체 대표자들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불교환경연대는 백두대간과 주요 산에 위치한 사찰의 생태 및 문화 조사, 불교환경론의 정립, 불교환경교육,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사업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백두대간의 주요 산에 터 잡은 사찰의 자연생태 및 역사 문화 조사사업과 보존운동에 중점을 두고 2001년까지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권역내 주요 사찰의 생태 문화 종교환경을 조사, 보고서와 함께 지도를 발간할 예정이다.

불교환경상사의 이론적 정립과 함께 불교환경정책 및 자연생태계 보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불교 및 환경법령을 연구해 관련법의 제 · 개정 활동을 펼치는 것도 주요한 사업. 이를 통해 환경관련 정책, 행정 및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찰을 중심으로 한 백두대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 환경지킴이를 양성함으로써 수행환경 및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국내외 연대활동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 것도 기존 단체들과는 다른 발상이다. 이를위해 불교환경연대는 내년 9월까지 100개의 회원 사찰을 확보하는 등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유정길 창립준비위원장(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정신과 혼을 바로 세우고 사찰의 생명과 생기를 살려 도인을 배출해 불교를 융성하게 하는 백두대간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 원로의원
청하스님 입적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인 청하스님이 8월 22일 오전 6시 40분 세수 75세, 법랍 56세로 입적했다.〈행장3면〉

‘일체방하(一切放下) 휴거휴거(休去休去)’라는 임종게를 남긴 청하스님은 1927년 경북 월성에서 태어나 1946년 통도사 학봉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49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보광선원, 극락선원 등에서 안거를 성만한 스님은 조계종 2, 3, 5, 6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사 주지, 통도사 주지를 역임하고 72년 홍콩 홍법원 원장, 84년 영축총림 부방장, 96년 조계종 전계대화상을 지냈다.

청하스님의 영결식은 26일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통도사 다비장에서 거행된다. 055)382-7182. 천미희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공해없는 세상만들기

안암학사 고시원 임대

중앙승가대 반발 ‘계약파기’ 요구

중앙승가대 안암학사가 일반인에게 임대됐다.

학교법인 중앙승가대 이사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20일 총무원에서 범진유통과 5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범진유통은 고시원 운영으로 입찰에 응해 임대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안암학사는 이 기간동안 고시원으로 활용된다. 계약조건은 보증금 5억5천만원에 임대료 월 1500만원이며, 범진유통은 10월 입주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 교수협의회, 총동문회, 총학생회는 이날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임대사업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9면)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대학 구성원들과 안암학사 활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거나 학교당국과 사전 협의없이 전격적으로 임대계약한 처사에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하며, 임대사업보다는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각각의 명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정대스님 앞으로 발송, 사실상의 계약파기를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태고종 사태 ‘장기화’

양측 3차례 협상결렬… ‘20인 수습위’ 구성

태고종 총무원(원장 혜초) 측과 비상대책회의(의장 철화) 측이 종단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좀처럼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6일에 이어 18, 20일 등 3차례에 걸쳐 성북구 총무원청사에서 협상을 가진 양측은 일단 각 10명씩이 동참하는 ‘20인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다시 협상을 한다는데 동의했다(24일 현재).

양측은 또한 상호 합의 속에서 종단 문제를 수습하며 비폭력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한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총무원측에서는 혜초 총무원장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자진 해산, 승려대회 이전으로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고,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종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수습대책위가 종단 최고 위원회로서 종단 전반의 업무 관장 및 위원장은 철화스님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24일 현재 총무원 측과 비상대책회의 측 스님들은 모두 성북구 총무원 청사에서 철수한 상태이다.

이경숙 기자

중국 불교수행단 30명
신흥사서 한국불교 체험

중국의 대표적인 사찰의 스님 30여명이 ‘중국불교수행단’을 구성, 9월4일부터 13일까지 속초 신흥사에서 한국불교를 체험한다.

중국 스님들은 신흥사에서 전통 좌선지도 및 실수 프로그램을 비롯해 조석예불, 108대예참 등 한국 사찰의 수행생활을 익히게 된다.

이번 중국불교수행단 스님들의 방한은 깊은 역사적 문화적 연계성을 갖고 있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배워 문화혁명으로 전통이 단절된 중국불교를 다시 세우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원우기자

포교·봉사 잘해도 대학간다

동국대 추천수시모집

포교와 봉사만 잘해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최근 불교포교와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 재가불자들 대상으로 ‘불교계 추천 수시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돈독한 신심으로 포교와 포교에 남다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자들에게 시험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는 특별전형이다. 자격은 1976년1월1일 이전 출생한 재가불자로 포교와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조계종 포교원장, 교육원장을 비롯해 조계종 산하 사찰 주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 원서접수는 9월5일부터 8일까지. 수시모집은 서울캠퍼스 불교대학에 한하며 전형방법은 교과성적 50% 면접 50%.

김중근 기자

민영교도소 수탁자 모집
법무부 올연말까지 접수

법무부가 민영교도소 설치 · 운영에 관한 제안요청 및 민영교도소 수탁자 선정절차를 24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제안요청 사항은 교도소 시설 신축계획 및 수용자 수용 · 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등이며, 제안자격은 법인으로 제한했다.

민영교도소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21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며, 심사 및 평가 방법은 제안자 현황 30점, 교정업무 수행계획 100점, 교도소 설치계획 100점, 기타 20점 등 총 250점 만점이다.(02)500~2273 한명우 기자